

한의학 분야 번역의 현황과 과제

오준호 · 권오민*

차례

1. 머리말
2. 한의학 분야 번역의 통시적 현황
3. 한의학 분야 번역의 특징
4. 한의학 분야 번역의 과제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문으로 작성된 동아시아 전통의학 문헌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토대로 한의학 분야 번역이 지향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한의학은 인간의 질병과 치료를 다루고 있는 실용 학문이다. 따라서 한의학 분야 번역은 특히 지식 인프라로서의 속성이 강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밀한 번역이 수행되어야 한다. 모호한 표현일수록 자세한 고증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하며, 적절히 번역되지 않는 곳은 알 수 없다고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한의학 분야에서 오역은 곧바로 잘못된 시술이나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한의학 분야 번역은 한의계 내부의 역량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왔다. 60년대 『동의보감』이 초역된 이래로 70년대 중요 원전 의서와 임상의서가 번역되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대상 서적의 범위가 확대되고 학생들까지 번역에 참여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전문역자 계층이 성장하고 한의학 번역의 질적인 반성이 이루어지는 등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 junho@kiom.re.kr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 fivemink@kiom.re.kr

한의학 분야 번역은 한의학 전공자가 같은 한의학 전공자를 독자로 상정하고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목적에 있어서도 학교 교육이나 개인의 학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번역 대상서 역시 인지도 높은 의서를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번역에서 善本 선정과 원문 교감이 간과되거나 독자층에 대한 고려 없이 기획되는 문제들은 한의학 분야 번역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또 번역 자원이 한 쪽으로 집중되면서 다양한 번역이 제한되는 폐단도 해소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의학 분야 번역은 학계 내외로부터 좀 더 높은 학술적인 완성도와 체계적인 효율성을 요구받을 것이다. 정보는 책뿐만 아니라 전자매체로 공개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열람하고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간 한의학계 내부 역량만으로 많은 한의서들이 번역되어 왔지만, 번역 대상서를 다양화하고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의 전문성은 심화시키면서도 다른 학문 분야와의 공동 번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 고유의 실용성을 살리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번역 이후 활용 분야와의 연계에 대한 체계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한의학, 동양의학, 번역, 고전, 의학문헌

1. 머리말

고전 번역의 목적은 “고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정보를 왜곡되지 않게 언어 현재를 사는 인간이 해결하고 실천해야 할 실용적 윤리적 과제를 비추어 보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한다.¹⁾ 고전 번역은 세상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무수한 현상들에 대해 현재의 인간이 과거의 인간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행위이다. 고전이 주는 조언은 다양하다. 역사적인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 문학적 감상에서 철학적 사유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어느 것이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질병에 대한 문제는 어떠할까.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하듯 질병과 투쟁했던

1) 엄연석, 「고전번역의 중요성」, 『선비문화』 제21집, 남명학연구원, 2012, 71면.

과거의 선조들도 그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에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온 전통의학이 존재한다. 한문으로 기록된 이 방대한 지식창고에는 수천 년 동안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통지식인 한의학이 소멸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는 기저에는 바로 이 문헌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친숙함과는 별도로 한문이라는 언어적 한계와 전문분야라는 지적 장벽으로 인해 그 본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본 이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여러 편견이 난무하는 것도 우리가 아닐 것이다. 한편에서는 진부하고 원시적이니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도 있고, 현재에 없는 고대 보물이 간직된 양 한의학을 신비롭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선인들이 남긴 고전이 그러하듯 한의학 문헌도 당시 사람들이 남긴 삶의 모습 일 뿐이며, 우리가 어떻게 문을 두드리느냐에 따라 전실의 유물이 될 수도 있고 난제를 풀어줄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갈림길에서 한의학이 어디로 나아가는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 한의학의 고문헌들이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번역이다. 한의학은 기술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이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들을 적절히 번역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한문으로 된 한의학 문헌 번역은 과거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하지만 과거의 생각을 글자에서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는 일은 남다른 끈기와 성실성이 요구된다. 특히 한문으로 된 텍스트가 모두 그러하듯, 생략과 도치가 빈번하고 典故를 전제하고 문장을 구사하기 때문에 전후 맥락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반의 지식이 있어야 오역을 피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을 독해해 내기 위해 많은 공구서와 주변 자료들을 열람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학적 맥락에서 행간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도 단순하지 않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한의학 고문헌 번역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전문 연구도 수행되었다.²⁾ 본고에서는 그간의 한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번역 성과들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의학 분야 번역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몇 가지 정리하여 향후 한의학 고문헌 번역에 일조하고자 한다.

2. 한의학 분야 번역의 통시적 현황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문헌 번역은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한문으로 저술된 서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해당하는 한의학 고문헌의 범위는 대략 1만종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 이루어진 『中國醫籍大辭典』³⁾에는 현대문헌까지 포함하여 약 17,600여종의 의서가 실려 있다. 또 일본의 고의서를 정리한 『日本漢方典籍辭典』⁴⁾에는 712종의 의서가 실려 있다. 고일본어로 저술된 서적을 제외하더라도 적지 않은 양이다.

상업출판이 성숙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한의학 전적의 규모는 이보다 적

2) 한의학 분야 번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 연구가 있다. 김용한·김영호·김은하, 『동의보감』 번역서에 대한 이견,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3(1), 대한한의원전학회, 2010, 143-161면. ; 김용한·김은하, 『동의보감』에 쓰여진 허준 문장의 문법적 특성과 번역서 오류,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4(6), 대한한의원전학회, 2010, 111-124면. ; 맹응재, 『동의보감』 한문 번역본의 잘못된 점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의학지』 10(1), 한국전통의학연구소, 2000, 71-81면. ; 박상영·권오민·오준호, 『열하일기』 소재 금료소초 번역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5(1), 대한한의원전학회, 2012, 51-68면. ; 박상영, 『한의학 관련 자료 번역의 문제와 전망』, 『고전번역연구』 제3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99-136면.

3)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4) 小曾戶洋, 『日本漢方典籍辭典』, 大修館書店, 1999.

은 편이다. 三木榮은 한국고유의서를 151종, 의약관계서를 79종으로 정리하였다.⁵⁾ 하지만 그의 연구 속에는 한의학 역사상 가장 방대한 의서 가운데 하나인 『醫方類聚』가 포함되어 있어 문헌의 절대 양으로 본다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필사본 의서들이 발굴되면서 우리 한의학 고문헌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⁶⁾ 이렇게 방대한 문헌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한의학 분야 번역의 속도는 더딘 편이다. 본절에서는 한의학 분야 번역 현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1960년대 이전 번역

넓은 의미에서 한의학 문헌의 번역은 언해본 의서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현대인이 당시의 언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번역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언해본 의서의 형성 자체가 한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해 의서는 주로 전염성 질환이나 구급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른 시기의 언해 의서로는 1489년 만들어진 『救急簡易方』을 들 수 있는데, 8권 8책의 적지 않은 분량이다.(〈그림1〉 참조) 한글창제가 1446년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서의 언해는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전염병은 의서가 언해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전염병이 돌면 국가는 의사들로 하여금 유행하는 전염병에 맞는 치료 지식을 추출해 내는 한편, 이를 언해하여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게 반사하곤 하였다. 익히 알려진 『諺解辟瘟方』(1518, 실전), 『諺解救急方』(1607), 『諺解痘瘡集要』(1608) 등은 이렇게 국가 현안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서들이다.

5) 三木榮,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1973.

6) 최근 발굴되어 번역된 『愚峯雜著』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책은 2010년 번역되었다. 장대경 저, 안상우·황재운 역, 『국역 우잠잡지』,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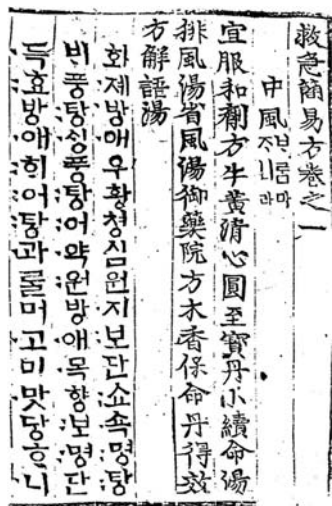
전염병이나 구급질환과 상관없는 경우에도 널리 의학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언해 의서가 만들어졌다. 『診解胎産集要』(1608)나 『診解臘藥症治方』(연대미상) 등이 그러한 예이다.

한문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번역이 시작된 것은 문자언어의 중심축이 漢文에서 한글로 이동한 甲午更張(1894) 이후이다.⁷⁾ 이시기 한의학과 관련된 번역 활동은 미미하였다. 한문으로 읽고 쓰기가 가능했던 전문가들은 한의학 문헌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李濟馬(1837-1900)의 『東醫壽世保元』(1901), 李峻奎(1852-1918)의 『醫方撮要』(1906), 韓秉璉(1877-?)의 『醫方新鑑』(1915)은 물론, 1920년대에 형성된 南采祐(1872-?)의 『靑囊訣』(1924)나 金弘濟(1887-?)의 『一金方』(1928) 등도 모두 한문으로 저술되었다. 다만 單方이나 經驗方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저술된 의서들의 경우에는 한글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번역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국한문 혼용체로 저술하거나 의서 일부 내용만을 한글로 병기하기는 정도였으며 한문으로 형성된 과거 서적을 한글로 모두 번역해 내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측면에서 번역의 대상이 되는 원저의 형태나 존재가 모호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增補單方新編』(1913)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⁸⁾ 편역자 池松旭은 한문으로 기록된 한의학 지식을 빠짐없이 한글로 번역해 냈으며, 번역을 통해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의학지식을 제공하였다.⁹⁾ (<그림2> 참조)

7) 이규필, 「근현대 古典翻譯에 대한 一考察」, 『고전번역연구』 제23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1, 10면.

8) 『增補單方新編』에는 丁若鏞(1762-1836)과 申曼(1620~1669)이 원저작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이 함께 지은 서적은 알려진 바 없다. 편역자 지송욱이 정약용과 신만이 지은 서적을 각각 일부 채록하여 번역한 것이라면, 기존 의서를 온전히 번역해냈다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9) 20세기 초 한의학 서적 간행에 대해서는 김남일의 연구가 있다. (김남일, 『醫書의 刊行을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醫史學』 15(1), 대한의사학회, 2006, 77-105면.) 그러나 아직 학계에서는 20세기 초 간행 서적 연구의 범위를 단방이나



〈그림 1〉 『救急簡易方』



〈그림 2〉 『增補單方新編』

20세기 중반, 광복과 6.25를 거치는 동안 한의학은 몇 번의 위기를 맞았다.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의료를 단일화한 일본식 모델을 채택하려는 정치적 압력이 꾸준히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51년에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모두 인정하는 二元制國民醫療法이 태동하기까지 많은 논쟁이 불가피했다.¹⁰⁾ 이 법으로 한의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전란으로 혼란하던 50년대에 번역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민족문화 부흥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東醫寶鑑』의 번역이 시도되었을 뿐이다. 『동의보감』을 최초로 번역한 허민의 기록을 보면(아래 참조), 민족문화 부흥의 방편으로 한의서 번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의학을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경험을 다루고 있는 의서들에게까지 확대시키지 못하였다. 자료 접근의 제한으로 본고에서도 이 시기 의서들을 충분히 조사하여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성과를 기다리고자 한다.

10) 김기욱 외,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513-516면.

가 아니라 민족문화의 표상으로 인식한 탓이다. 그러나 번역에 필요한 학술적인 역량은 아직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

2.2. 1960-70년대 번역

본격적으로 한의학 문헌 번역이 이루어진 것은 60-70년도의 일로, 한의학 분야 번역의 개척기에 해당한다. 다시금 존폐의 기로에 놓였던 한의사제도는 1962년 國家再建最高會議에서 新醫療法案이 통과되면서 법적 지위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고, 1963년 東洋醫藥學校가 6년제 의과대학인 東洋醫科大學로 승격되면서 전공자 양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¹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62년 『동의보감』이 완역되었다. 역자 芸田 許珉(1911-1967)은 경남 합천군 태생으로 진주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문인이자 예술가였다. 어려서부터 嶺南 巨儒 重齋 金梔으로부터 한학을 배웠고 일찍부터 詩書畫에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그가 『동의보감』 번역에 뜻을 세운 것은 전란 중이었던 1952년이였다. 그러나 곧 임상 경험 없이 진행한 번역에 한계를 느끼고 후일을 기다리며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가, 1960년 동의보감 국역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시금 스스로 번역에 착수하여 51세인 1962년 번역원고를 탈고하였다.¹²⁾¹³⁾ 그는 번역서 첫머리에 있는 「東醫寶鑑序文譯刊辭」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같은 淺學菲才가 平日에 蘊蓄한 刀圭의 篤工과 ‘折肱’의 經驗도 없
이 敢히 醫宗의 聖書인 『東醫寶鑑』을 繙譯한다는것은 마치 모기가 山을
지고 바다를 건느는것과 같은 猥濫되기 짝이 없는 일인줄을 모르는바가 아

11) 대한한의사협회, 『大韓韓醫師協會 四十年史』, 대한한의사협회, 1989, 120-150면.

12) 이현주, 『芸田 許珉의 繪畫 小考』, 『조형연구』 제11집, 동아대학교 부설 조형연구소, 2005, 70-96면.

13) 허민은 동의보감 번역을 마친 뒤인 1965년 다시 『熱河日記』 번역에 착수하여 2년만인 1967년에 번역을 마치기도 하였다. 이현주, 앞의 논문, 92-96면.

니다. 너무나 힘에 벅차고 分에 넘친일은 宜當, 賢明한 斯界의 權威家에게 미루어야만 옳은것이라는 良識에서 十年前에 뜻했던 이 譯稿의 執筆을 一時 中斷하고 다만 어느 누구의 손으로든지 盡善美한 譯書가 하로 빨리 이 世上에 나오기를 矯首企待하였다. 아닌게아니라 그 동안에 여러 機關에서 或은 여러 老師、宿學들이 이 巨創한 事業을 한번 이룩해 보려고 가진 努力과 心血을 傾湊하고 있다는 消息들이 種種 들려오곤 하였다. 그러나 우리、杏林界의 宿願이요 民族文化의 象徵인 이 巨大한 事業은 좀처럼 우리의 눈앞에 實現되지않고 모-두가 다 中間에 挫折 또는 中止되고 말았다한다. …(중략)… 그러나 나는 생각해 보았다. 現下와 같이 萎靡不振하는 漢醫學界가 亦是 西勢東漸의 大勢에 휩쓸려서 자칫하면 退轉의 悲運을 免하기 어려운 此際에 拙劣하고 疏漏하나마 精誠을 다하여 此書를 翻譯해 내기만 한다면 原文을 解讀하기 困難한 學究諸賢에게 모래더미 속에서 砂金을 줌는것과 같은 아쉬운 方便이 多少나마 있을것ियो 또 이것을 土臺로하고 나아가서는 刺戟을 받아서 좀 더 眞善한 良譯이 나올 動機가 된다면 나의 이 愚舉가 노상 헛된것이 아니라는 妄想이 싹트기 始作하여서 거이 蠻勇에 가까운 執筆의 決心을 해 본것이다.¹⁴⁾

위 글을 보면, 그는 전문적으로 한의계에 몸담고 있지 않았고 임상 경험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의보감』의 번역이 한국 의학계의 숙원을 풀고 민족문화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에 이미 번역이 지니는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했던 셈이다. 허민 선생의 번역은 1962년 국제출판사에서 초간되고 1964년에는 동양종합통신대학교육부에서 간행되었다.(〈그림3〉 참조) 그 후 풍년사(1966년)와 남산당(1969년)으로 이어져 간행되었으나 풍년사와 남산당본에는 역자 허민 선생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¹⁵⁾

『동의보감』의 번역은 마중물이 되어 1970년대 주요 의서 번역으로 이어졌

14) 허준 저, 허민 역, 『詳譯 東醫寶鑑』, 동양종합통신대학교육부, 1964, 1면.

15) 김용욱, 『너와 나의 한의학』, 통나무, 1993, 150-156면.

다. 70년대 한의학 분야 번역은 중요 원전의서와 임상서의가 그 대상이 되었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이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黃帝內經』이 홍원식에 의해 『黃帝內經靈樞解釋』과 『黃帝內經素問解釋』으로 나뉘어 번역되었고(<그림4> 참조), 임상 치료의 典範이라고 할 수 있는 『傷寒論』의 번역은 이보다 빠른 1971년에 채인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상한론』과 함께 임상 의학 고전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金匱要略』은 조금 늦은 1978년에 박헌재에 의해 번역되었다. 같은 해 정해철은 『千金要方』을 번역해 냈다. 唐代 孫思邈(581-682)이 저술한 『천금요방』은 한의학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서적이다. 이 번역은 東西文化院에서 1978년에 간행한 “益壽千金方 漢方醫藥大全集”이라는 전집 13-16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3〉『詳譯 東醫寶鑑』



〈그림 4〉『黃帝內經靈樞解釋』

한편, 임상치료와 직결되어 있는 임상서의들의 번역도 본격화 되었다. 明代 종합의서로서 한국에서 가장 애독되었던 『醫學入門』과 『萬病回春』의 번역서도 이즈음에 간행 되었으며, 조선 말기 의서로서 한국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東醫壽世保元』과 『方藥合編』도 모두 70년대에 번역되었다. 이렇게 하여 『靈樞』-『素問』-『傷寒論』-『金匱要略』-『千金要方』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전류 의서의 번역과 『東醫寶鑑』-『醫學入門』-『萬病回春』-『東醫壽世保元』-『方藥合編』으로 이어지는 주요 임상 의서의 번역이 이 시기에 완료되었다. (<표1> 참조)

초판발행	역자	역자정보	서명	번역대상서명	출판사
1962	허민	한학자, 화가	상역 동의보감	東醫寶鑑	국제출판사; 동양종합통신대학교육부
1966	동의보감 국역위원회	-	국역 동의보감	東醫寶鑑	풍년사
1969	동의보감 국역위원회	-	국역증보 동의보감	東醫寶鑑	남산당
1971	채인식	한의학자	상한론역전	傷寒論	고문사
1972	홍원식	한의학자	황제내경영주해석	黃帝內經靈樞	고문사
1973	홍원식	한의학자	황제내경소문해석	黃帝內經素問	고문사
1973	의학입문 편찬위원회	한의학자	정교국역 의학입문	醫學入門	동양종합통신대학교육부
1973	한동석	한의학자	동의수세보원 주석	東醫壽世保元	상당출판사
1974	채인식	한의학자	국역 편주의학입문	醫學入門	남산당
1975	염태환	한의학자	증주국역 방약합편	方藥合編	행림서원
1977	주갑해	한의학자	국역 만병회춘	萬病回春	계축문화사
1978	박헌재	한의학자	완역 금계요략	金匱要略	서원당
1978	정해철	한의학자	(익수천금방 한방의학대전집) 천금요방	千金要方	동서문화원

<표 1> 60-70년대 한의학 분야 번역 개척기 주요 번역서

2.3. 80-90년대 한의학 분야 번역

80-90년대 들어서 한의학 번역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번역에 있어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시기이다. 60-70년대에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의서의 번역이 마무리 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분과서적까지 번역 범위가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한의학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의 잇따른 개교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연구자집단이 형성되었으며, 교육체계 하에서 전공자들이 늘어나면서 번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함께 많아졌다. 대구한의대(1980년 개교), 대전대 한의과대학(1980년 개교), 동의대 한의과대학(1986년 개교), 우석대 한의과대학(1987년 개교), 상지대 한의과대학(1988년 개교), 경원대 한의과대학(현재 가천대, 1990년 개교), 세명대 한의과대학(1991년 개교), 동신대 한의과대학(1992년 개교)이 모두 이 시기에 개교하였으며, 경희대 한의과대학(1965년 고황재단과 동양의과대학 병합), 원광대 한의과대학(1972년 개교), 동국대 한의과대학(1978년 개교)에서는 졸업생을 본격적으로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교육기관의 증가는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번역서 간행으로 이어졌으며, 학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출됨에 따라 번역 시도도 많아졌다.

이 시기 번역의 특징은 번역 대상서들이 다양화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원전에 대한 번역이 추가로 진행되었다. 『황제내경』과 함께 한의학의 주요 이론을 기록해 놓은 『校訂圖注八十一難經』이 번역되었고, 宋代 대표적인 傷寒 의서인 『活人書』도 이 시기에 번역되었다. 각 분과별 주요 의서로는 침구학 지식을 집대성한 『鍼灸大成』과 임상에서 긴요한 치료지식을 요약적으로 정리한 『鍼灸經驗方』의 번역이 눈에 띈다. 脈診을 전문적으로 기술한 『瀕湖脈學』과 대표적인 부인과 전문서인 『婦人大全良方』의 번역도 수행되었다.(<표 2>참조)

초판발행	역자	역자정보	서명	번역대상서명	출판사
1982	박두희	미상	신역 침구대성	鍼灸大成	동양종합통신 교육원출판부
1987	변연환	한의학자	완역교주 부인양방	婦人大全良方	한림원
1989	신민교;박경 ;맹용재	한의학자	국역 향약집성방	鄉藥集成方	영림사
1992	박경	한의학자	국역 빈호맥학; 사언거요; 기경팔맥고(부맥결고증)	瀕湖脈學;四言舉要; 奇經八脈考	대성문화사
1998	임진석	한의학자	활인서	活人書	아티전
1998	김달래	한의학자	명선록	明善錄	정담
1999	오기용	한의학자	교정도주팔십일난경	校訂圖注八十一難經	영서신문사
1999	김달래	한의학자	침구경험방	鍼灸經驗方	정담

<표 2> 80-90년대 한의학 분야 번역 성장기 주요 번역서

90년대 들어 한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정기적으로 배출되면서 번역에서도 독특한 조류가 생겨났다. 한의과대학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졸업작품 형식으로 한의서들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다. 졸업준비위원회는 한의사국가고시를 대비하기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한 자조집단이다. 이 조류를 주도한 것은 대전대였다. 대전대 3기 졸업준비위원회가 1990년¹⁶⁾ 『內外傷辨惑論』과 『蘭室秘藏』을 번역한 것을 계기로 후배들이 『東垣十書』의 서적들을 차례로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1999년 대전대 11기 졸업준비위원회까지 이어졌다. 이런 시도는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광대 17기와 19기 졸업생들은 『徐靈胎醫書』와 『醫林改錯』을 각각 번역하였으며, 상지대 2기와 4기 졸업생들은 『傳青主男女科』와 『血證論』을 번역하였고 5기는 葉天士의 『臨證指南醫案』을 번역하였다. 비록 학생들의 집단 작업으로 번역의 질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들 번역은 80년대까지 이루어진 번역에 비해 소재 면에서 매우 다양해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번역서들은 학교 간 학풍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대전대 졸업생들이 한의학의 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金元時代의 학술성과가 집약되어 있는 『東垣十書』를 번역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반해, 원광대와 상지대 학생들은 진보적이고 독창적인 의학이론을 담고 있는 清代 서적들을 주로 번역해냈다. (<표 3> 참조)

번역을 기반으로 한 학생들의 학술활동은 한의학에 대한 대외적인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1993년 보건사회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7호를 삭제하면서 촉발된 제1차 한약분쟁과, 1996년 제1회 한약조제약사시험 공고로 시작된 제2차 한약분쟁이 그것이다.¹⁷⁾ 제도적 난

16) 책의 간행 연도가 졸업 연도와 달리 1995년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정식 간행물로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7) 김기욱 외,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546-547면.

국은 한의계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선후배 사이의 연대감 형성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한의학 내부의 학술적인 힘을 기르자는 논의로 이어져 번역 작업에 주요한 동기로도 작용하였다.

초판 발행	역자	서명	번역대상서명	출판사
1995	대전대03기	국역 내외상변혹론 난실비장	內外傷辨惑論; 蘭室秘藏	대성문화사
1992	대전대05기	동원 비위론 역석	脾胃論	대성문화사
1993	대전대07기	역석 단계의론	格致餘論; 局方發揮	대성문화사
1998	대전대10기	국역 차사난지	此事難知	대성문화사
1999	대전대11기	(합본)외과정의 반론취영 의경소회집	外科精義; 瘕論萃英; 醫經溯匯集	의성당
1999	대전대11기	의무원용	醫壘元戎	의성당
1995	상지대02기	국역 부청주남녀과 섭천사여과	傳靑主男女科; 葉天士女科	대성문화사
1997	상지대04기	국역 혈증론	血證論	일중사
1998	상지대05기	섭천사임증지남의안	臨證指南醫案	정담
1994	원광대17기	국역 서영태의서	醫學源流論; 醫貫砒; 神農本草經百種錄; 傷寒論類方; 六經病解	대성문화사
1998	원광대19기	국역 의림개착	醫林改錯	원광대학교출판국
1999	동신대01기	의학충중참서록	醫學衷中參書錄	의성당
1999	세명대01기	국역 상한관주집	傷寒貫珠集	일중사

〈표 3〉 90년대 한의과대학 졸업준비위원회의 한의서 번역

한약분쟁이 정치적인 충격이라면, 90년대 북한 번역물의 국내 유입은 학술적인 충격이었다. 기성 출판사에 의해 전해진 북한 번역물에는 『동의보감』 뿐만 아니라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등 거대 의방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내 학계에서 소외되어 있던 『濟衆新編』, 『廣濟秘笈』, 『醫門寶鑑』, 『醫宗損益』, 『醫方新鑑』 등 조선 후기 고유 의서들도 망라되어 있었다. 이들은 국내에서 『동의학총서』, 『국역동의고전총서』, 『국역한의학대계』 등 총서 형태로 간행되었다.(〈표 4〉 참조)

자료의 부족으로 북한에서 이들 서적들이 어떻게 번역되어 어떤 형태로 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60년대부터 국가주도로 체계적이고

방대하게 한의서 번역이 수행된 것만은 분명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醫方類聚』, 『濟衆新編』 등 주요 의서의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북한 번역물들은 매우 선구적인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명	번역대상서명	북한판 역사	북한판 발행일	북한판 발행처	국내 발행일	국내 발행처	총서명
향약집성방	鄉藥集成方	미상	1962:1984	(평양)의학출판사; (평양)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1	여강	동의학총서
의방유취	醫方類聚	(북한)의학과 학원 동의학연구소	미상	(평양)의학출판사	1991		
동의보감	東醫寶鑑	조현영 ;김동일 ;한상모 ;박위근 등	1961:1982	(평양)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평양· 의학출판사	1992	여강	-
동의수세보원	東醫壽世保元	미상	1964	(평양)의학출판사	1992	여강	국역동의고 전총서
방약합편	方藥合編	김동일	1986	(평양)의학출판사	1993		
제중신편	濟衆新編	미상	1965	(평양)의학출판사	1992		
광제비급	廣濟秘笈	미상	1963	(평양)의학출판사	1992		
급유방	及幼方	미상	1964	(평양)의학출판사	1993		
의종손익(상하)	醫宗損益	김동일;노룡갑 ;박위근	1964:1965	(평양)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평양· 의학출판사	1993		
의문보감1-4	醫門寶鑑	김동일	미상	미상	1999	해동의 학사	국역한의학 대계
의림촬요1-4	醫林撮要	조현영;태창득 ;리성희;김동 일	미상	미상	1999		
의방신감1-3	醫方新鑑	리복현	미상	미상	1999		
동의사상신편	東醫四象新編	량병무	미상	미상	1999		
금궤비방	金匱秘方	장문경	미상	미상	1999		
동무유고	東武遺稿	량병무;차광석	미상	미상	1999		

〈표 4〉 90년대 한국에 유통된 한의학 분야 북한 번역서

2.4. 2000년대 이후 한의학 분야 번역

80-90년대 번역은 양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번역 대상 母本을 선정하는 부분이나 원문을 교감하는 부분이 생략되거나 간과된 경우가 흔했다. 또 원문에 표점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대역어 선택도 역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대에는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눈에 띄는 현상은 과거 번역에 대한 개역작업이다. 한동석이 1973년에 번역하고 주석한 『東醫壽世保元注釋』이 2006년 개정되어 간행되었는가 하면, 1998년에 번역된 『현토국역황제내경소문주석』이 2005년 개정되었다. 또 1994년 국내에 들어온 북한 번역본 『동의보감』에 대해서는 2003년에 2차 개정판이, 2005년에 3차 개정판이 간행되었다. 이 밖에도 『舍岩鍼灸正傳』, 『辨證奇聞』, 『東醫壽世保元』, 『柯氏傷寒論注』 등이 개역개정되었다.

2010년에 접어들어서면서 한의학 분야 번역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고전 문헌에 묶여 있던 한의학 전공자들의 관심은 현대 연구 성과들로 확장되었다. 한중일 국가들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대한 서구사회의 연구 성과들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간 한의학 번역을 주도하던 1세대 한의학자들이 퇴진하면서 한문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었던 이들의 역할에 공백이 생겨나게 되었다. 긍정적인 변화들도 존재한다. 번역을 학문 인프라로 여기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국가 주도의 한의학 분야 번역사업이 수행되었으며¹⁸⁾,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신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의학서적 전문 역자군이 형성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향후 한의학 분야 번역은 한문에 취약한 전공자들의 전문번역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 역자집단이 더욱 성장하면서 그간 한의학계

18) 국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의학 전문서 번역을 수행하여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42책)로 간행한 바 있다.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던 번역 자체에 대한 학술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한의학 분야 번역의 특징

지금까지 한의학 분야 번역 현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 한의학 분야 번역의 일반적인 특징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여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3.1. 번역의 주체와 독자, 한의학 전공자

한의학 분야 번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첫 번째 키워드는 ‘한의학 전공자’이다. 그간의 한의학 분야 번역들은 대부분 ‘한의학 전공자’가 같은 ‘한의학 전공자’를 위해 번역해 왔다. 한의학과 같은 전문 학술 분야에서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학 연구자들의 번역과 임상인들의 번역으로 나눌 수 있다. 기초학 연구자들의 번역은 역대 주석이나 제반 학술 설명에 공을 들이며 번역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문 문헌을 번역하는 제반 학술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징적인 것은 임상인들의 번역 양태이다. 임상인들은 번역 자체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상술하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번역을 최종 목적으로 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론을 펼치기 위한 중간 산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지식인 한의학이 현재에도 실용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 현상이다. 의학 이론 전개에서 한의학 고문헌의 문구를 어떻게 해독하느냐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한의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기에 앞서 해당 문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번역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임상저작으로 학계에서 각광 받았던 김형태의 『(도해)동의수세보원』은 번역을 중간 산물로 인식하고 자신의 의학 견해를 펼친 한 예이다. 그는 머리말에서 “제대로 적용된 사상치방은 평소보다 월등한 치료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고무되어 비로소 동의수세보원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뒤늦게 사상의학을 하겠다고 나선 덕분에 ‘어떤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가’를 주위 친구들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느껴지고 쫓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우미를 배제하고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이제마 선생님을 통해 직접 이제마식 사상의학을 이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략)… 동의수세보원 국역 부분은 이전에 나온 책들 중에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 본인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상한론 등에서 인용해 온 부분은 원문으로 보는 것이 더 함축미가 있어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다고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책보다도 수월하고 빠르게 보실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¹⁹⁾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사상의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동의수세보원』을 독해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번역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형태의 이 책에서 원문과 번역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5 정도이며, 나머지 4/5 가량의 분량은 사상의학에 대한 역자의 지견을 설명하는 데에 할애하였다. 전체 저작물에서 번역물이 차지하는 분량이 적은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번역서들의 공통점이다.

다른 전공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번역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으로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국어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언해서 국역²⁰⁾과 서울대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 생약학 연구 소재 개

19) 김형태, 『(도해)동의수세보원』, 정담, 1999, i 면.

20)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번역한 한의학 분야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김동소 역주, 『역주 구급방언해(상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 김동소 외 역주, 『역주 구급간이방언해(1-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8. ; 임홍빈 역주, 『역주 분문은역이해방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 ; 김문웅 역주, 『역주 신선태을자금단:간이

말을 위해 수행한 한의서 번역²¹⁾이 있다. 다년간 많은 분량을 번역해 낸 노작들이지만 번역 결과물에 대해 한의학적 검토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3.2. 번역의 목적, 학습의 방편

두 번째 키워드는 ‘학습’이다. 한의학 분야 번역의 가장 큰 동기이자 이유는 학습을 위한 것이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번역 동기가 교육을 위해 교재를 만들기 위한 것과 독학으로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한 것으로 나뉜다.

원문 텍스트가 중시되는 원전의서나 일부 임상의서의 경우 학습 교재를 목적으로 교수진에 의해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70년대 이루어진 원전의서 번역은 모두 전자에 해당한다. 또 90년대 한의과대학 교수들의 공역 작업으로 이루어진 『상한론』 및 『동의수세보원』 번역도 이에 해당한다.²²⁾ 가장 방대한 번역 연구 가운데 하나도 대학 교육을 위해 시작되었다. 2001년과 2002년 김달호와 이종형이 공동 번역한 『(주해보주)황제내경소문』과 『(주해보주)황제내경영주』가 그것인데, 황제내경과 역대 주석들을 모두 번역한 역작으로 원고 분량만 1997쪽에 달한다. 역자는 서문에서 “임상 의학

벽은방;벽은신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 ; 호완 역주, 『역주 언해두창집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 ; 정호완 역주, 『역주 언해태산집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0.

21) 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천연물과학연구소 편역, 『(한국전통의약번역총서 1)攷事撮要·增補山林經濟·攷事新書』, 서울대학교천연물과학연구소, 1994. ; 서울대학교천연물과학연구소 편역, 『(한국전통의약번역총서2)麻疹奇方·麻疹篇·麻科會通』, 서울대학교천연물과학연구소, 1995. ; 서울대학교천연물과학연구소 편역, 『(한국전통의약번역총서3)丹谷經驗方抄·壽民妙詮』, 서울대학교천연물과학연구소, 1995. ; 서울대학교천연물과학연구소 편역, 『(한국전통의약번역총서4)及幼方·經驗秘方小兒保鑑』, 서울대학교천연물과학연구소, 1995. ; 장일무 지제근 외 편역, 『심시요함』, 서울대학교천연물과학연구소, 1999. ; 장일무 지제근 외 역, 『단계의집』, 서울대학교천연물과학연구소, 2000.

22)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적을 들 수 있다. 문준전 외, 『상한론정해』, 경희대학교출판국, 1996. ;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편역, 『사상의학』, 집문당, 1997.

이 결코 『內經』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原文의 글자 1字도 제각기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중국에서 『內經』을 해석한 것은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작용했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內經』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에 임했다. …(중략)… 1995년부터 東義大 韓醫科大學에서 학생들에게 『靈樞』를 강의하면서 『靈樞』의 原文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楊上善의 註, 馬蒔의 註, 張介賓의 註, 張志聰의 註, 黃元御의 註, 章楠의 註 등을 추가하면서 이를 종합하여 해석한 후에 학생들에게 강의했는데, …(하략)…”²³⁾라고 적고 있다. 이를 보면 이 번역 작업 역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은 번역자를 위한 자족적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독자를 위한 상대적인 행위를 지향해야 한다고 한다.²⁴⁾ 하지만 한의학 분야 많은 번역서들 가운데 상당수는 역자 스스로의 공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번역은 원문이 주는 의미를 하나하나 재현해야 하는 지적 과정으로 자신의 지식을 날카롭게 점검하도록 해 준다. 따라서 번역은 매우 좋은 공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1994년 발간된 『본초문답』 번역은 강독을 위해 이루어졌다. 저자가 쓴 ‘서문을 대신하여’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장경악과 중서회통학과 그리고 부청주에게 관심이 많다. …(중략)… 이 책의 저자인 당중해는 청말 민국초의 대가로서 장석순과 함께 중서회통학과의 대표적 일원이다. …(중략)… 강독용으로 만든 책이어서 주석이 소략하며 번역문에도 조잡한 곳이 많고 색인이 부족한 등 모자란 부분이 많이 쓰인다. 정식으로 문세(問世)하기 앞서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동학(同學)들의 질정을 통해 좀 더 완성(完整)한 모양을 만들기 위함이고, 또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한 고백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²⁵⁾라고 적혀 있다. 자신의 관심 분야의 책을 독파해 나가는 과정에

23) 김달호·이종형 공편역, 『(주해보주)황제내경소문』, 의성당, 2001, 2면.

24) 장유승, 『학술번역이란 무엇인가』, 『고전번역연구』 제3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167면.

서 번역이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전문 연구자들이 自學의 방편으로 번역을 택한 경우도 있다. 명대 종합 의서의 하나인 『경약전서』를 번역한 안영민은 감사의 글에서 “학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한의학에 대한 학생들의 공부 경향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의학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중략)… 이 책을 통해 張介賓 선생이 『內經』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임상에 적용하며, 질병에서 陰陽과 表裏寒熱虛實이 어떻게 정의되고 응용되는지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²⁶⁾라고 술회하였다. 역자가 경약전서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번역을 이용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3.3. 번역의 대상, 편중과 중복

세 번째 키워드는 ‘편중’으로, 앞의 ‘학습’과 연관 깊다. 한의학 분야 번역에는 대상서적의 편중이 두드러지는데, 『黃帝內經』, 『傷寒論』,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을 대상으로 한 것이 과반을 넘는다. 이들 서적은 모두 학교 교육과 임상 현장에서 중시되는 의서들이다.(<표 5-8> 참조)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에 의해 번역되기도 하였고, 임상가들이 자신의 의학지식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수행되기도 하였다. 수요가 많은 의서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번역이 조장된 측면도 있다.

번역 편중 현상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았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의 의서를 번역하여 발생하는 학술경쟁보다는 자원의 독점으로 번역 대상서가 다양해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들 번역 가운데 선행 번역 성과를 발판으로 체계적으로 오역을 바로잡고 더 좋은 번역 결과를

25) 당중해 저, 김준기 역, 『(국역)본초문답』, 대성문화사, 1994, i 면.

26) 장개빈 저, 안영민 역, 『경약전서』, 한미의학, 2006, ix 면.

내는 경우는 드물다. 장기적으로 번역을 주도할 학술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대목이다.

초판 발행	역자	역자정보	서명	번역대상서명	출판사
1972	홍원식	한의학자	황제내경영추해석	黃帝內經靈樞	고문사
1973	홍원식	한의학자	황제내경소문해석	黃帝內經素問	고문사
1991	홍원식	한의학자	황제내경소문직역	黃帝內經素問	전통문화연구회
1992	홍원식	한의학자	황제내경소문교감직역	黃帝內經素問	전통문화연구회
1994	홍원식	한의학자	황제내경영추교감직역	黃帝內經靈樞	전통문화연구회
1994	배병철	기타	금석황제내경소문	黃帝內經素問	성보사
1995	배병철	기타	금석황제내경영추	黃帝內經靈樞	성보사
2000	배병철	기타	국역 황제내경	黃帝內經素問靈樞	성보사
1998	박찬국	한의학자	현토국역황제내경소문주석	黃帝內經素問	경희대; 집문당
1994	이경우	한의학자	역해편주황제내경소문	黃帝內經素問	여강
2000	이경우	한의학자	편주역해황제내경영추	黃帝內經靈樞	여강
2001	김달호	한의학자	주해보주황제내경소문	黃帝內經素問	의성당
2002	김달호	한의학자	주해보주황제내경영추	黃帝內經靈樞	의성당
2003	윤창렬	한의학자	현토완역황제내경소문왕빙주	黃帝內經素問	주민
2003	이선호	한의학자	선호영추	黃帝內經靈樞	주민
2010	정중환	중의학자	보주교주황제내경소문해석	黃帝內經素問	의성당

〈표 5〉 『黃帝內經』 관련 번역서 현황

분류	초판 발행	역자	역자정보	서명	번역대상 서명	출판사
상한론	1971	채인식	한의학자	상한론역전	傷寒論	고문사
	1996	(공역)	한의학자	상한론정해		경희대학교출판국
	2005	(공역)	한의학자	현대상한론		한의문화사
	2005	김일선의	중의학자	상한론 번역과 해석		집문당
금궤요략	1978	박헌재	한의학자	완역 금궤요략	金匱要略	서원당
	1996	이동건	한의학자	국역 금궤요략		서원당
	2002	곽동렬	중문학자	금궤요략 역해		성보사
	2004	최달영; 김준기; 엄용하	한의학자	금궤요략석강		동국대학교출판부

상한론 주해서	1998	임진석	한의학자	활인서	活人書	아티전
	1999	권건혁	한의학자	국역 활인서		반룡
	2010	안영민	한의학자	활인서		한미의학
	1999	세명대01기	한의학 (학생)	국역 상한관주집	傷寒貫珠集	일중사
	2003	조학준	한의학자	현토완역 상한관주집		주민출판사
	2009	안영민	한의학자	상한관주집		한미의학
	1999	윤창렬 ;신영일 ;김선호	한의학자	현토완역 가씨상한론주	柯氏傷寒論注	주민출판사
	2003	신영일 ;김선호	한의학자	현토완역 상한명리론	傷寒明理論	주민출판사
	2009	안영민	한의학자	상한명리론		한미의학
	2011	안영민	한의학자	상한론유방	傷寒論類方	한미의학
금궤요략 주해서	2008	경희대신계 내과	한의학자	금궤요략심전역해	金匱要略心典	집문당

〈표 6〉 『傷寒論』 『金匱要略』 및 傷寒 金匱 관련서 번역 현황

발행	비고	역자	역자정보	서명	출판사
1962	-	허민	한학자, 화가	상역 동의보감	국제출판사
1964	재판				동양종합통신대학교육부
1966	-	동의보감국역위원회	-	국역 동의보감	풍년사
1969	-	동의보감국역위원회	-	국역중보 동의보감	남산당
(1961)	북한				
(1982)	북한 개정				
1994	-	(북한)조현영;김동일;한상모;박위근 등	한의학자	원문대역 동의보감	여강
2003	2차 개정				
2005	3차 개정				
1988	-	동의보감편찬위원회	-	일본국역 동의보감	학력개발사
1994	개정				
1999	-	동의문헌연구실	-	대역 동의보감	법인
2005	-	동의문헌연구실	-	신편대역 동의보감	
2007	-	동의문헌연구실	-	신대역 동의보감	
2009	개정				
2002	-	동의과학연구소	다학제 공역	동의보감(내경편)	휴머니스트
2008	-			동의보감(외형편)	
2003	-	원진희	한의학자	정교주역 동의보감	신우문화사
2003	-	최창록	국문학자	완역 동의보감	푸른사상
2005	-	윤석희 외	한의학자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표 7〉 『東醫寶鑑』 관련 번역 현황

초판 발행	역자	역자정보	서명	번역대상서명	출판사
1973	윤길영	한의학자	사상체질의학론	東醫壽世保元	한얼문고
1973	한동석	한의학자	동의수세보원 주석		상당출판사
1973	홍형용;이을호	다학계 공역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사
1977	박석연	한의학자	동의사상대전		의도한국사
1985	송주상	한문학자	동의수세보원		한얼
1992	(북한)동의학 연구소	-	동의수세보원		여강
1993	오병호	한의학자	사상체질의학창시자		서원당
1996	이민수	한문학자	동의수세보원		을문문화사
1999	권건혁	한의학자	국역 동의수세보원		반룡
1999	김형태	한의학자	동의수세보원		정담
2000	신홍일	한의학자	동의수세보원주해		대성의학사
2006	류순섭	중의학자	사상의학동해		대학서림
2007	라경찬	한의학자	동의수세보원 발몽		의성당
2007	최문태	한의학자	동의수세보원 해설		초락당
1997	전국 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한의학자	사상의학		집문당
2008	윤용섭	중의학자	동의수세보원 개작		BG북갤러리
2012	최대우	철학자	동의수세보원 역해		경인문화사
1998	김달래	한의학자	명선록	明善錄	정담
1999	김달래	한의학자	동의수세보원 초고	東醫壽世保元四象	정담
2003	박성식	한의학자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	草本卷	집문당
2002	김달래	한의학자	동의수세보원보편	東醫壽世保元補編 (普濟演說)	대성의학사

〈표 8〉 『東醫壽世保元』 관련 번역 현황

4. 한의학 분야 번역의 과제

앞서 약속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한의학 번역은 질적인 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한문에 대한 전공자들의 관심과 독해 능력이 함께 저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한문으로 기록된 1차

문헌을 이해할 수 없는 전공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학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한의학 분야 번역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절에서는 향후 한의학 분야 번역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4.1. 전문 술어 대역어 기준 마련

한 의서는 기술서로서 자연어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증상과 치료에 전문 술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번역은 번역자들의 고유한 작업이지만 전문 술어의 경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대역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저자가 번역한 동일한 서적 내라면 더욱 그러하다. 현재까지 한의학 전문 술어에 대한 번역은 번역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하나의 번역 대상서 안에 등장하는 전문 술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책 전체를 동일한 대역어로 번역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대량의 의서를 여러 역자가 협력하여 번역하는 경우나 다학제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 작업을 진행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전문 역자들을 중심으로 대역어가 필요한 한의학 전문 술어 그룹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대역어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전문 술어의 대역어 확정에서 비교적 단순한 것은 한의학 고문헌에 등장하는 고유명사들이다. 이런 고유명사들은 한의학 전공자들에게는 익숙한 것들이지만 타분야 전공자들과의 협동 번역에서는 종종 문제로 작용한다. 실제로 약재 이름인 ‘破古紙’를 ‘오래된 파지’ 혹은 ‘풀어 헤쳐 놓은 오래된 종이’로 풀어 놓은 경우나, 『醫家必用』이라는 방서에 등장하는 甘桔湯을 특정하기 위해 명명된 방제이름인 ‘必用方甘桔湯’도 ‘반드시 써야할 처방인 감길탕’으로 초벌 오역된 예가 있었다. 방제 이름에 빈번히 등장하는 ‘加味’라는 표현 역시 ‘加味二陳湯’과 같이 방제의 고유한 이름으로 자주 사용

되지만 ‘약재를 가미한 이진탕’처럼 의미로 푼 오역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보다 어려운 문제는 병증 술어의 대역어 설정에 있다. 한의학 전공자들이 수행한 번역에서도 이들 병증 술어가 서로 다르게 번역되거나 모호한 부분을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대역어 범위를 정한 뒤에도 여전히 역자의 판단을 요한다. 대표적인 예가 寒熱과 心腹이다. 寒熱은 추위를 느끼면서 동시에 열이 나는 ‘惡寒發熱’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간차를 두고 추위 떨다가 더워 답답해하기를 반복하는 ‘寒熱往來’를 의미하기도 한다. “邪在肺則寒熱上氣”의 경우에는 오한발열의 의미로 풀어야 하고 “膽病多寒熱”의 경우에는 한열왕래의 개념으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번역서에서 생략된 의미를 복원해 내지 못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한열이 있다.”고 번역한 곳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할 경우 독자들은 본문이 주는 원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병증은 인체 부위와 함께 서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心腹’같은 술어가 번역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心腹은 胸腹과 동의어로서 가슴과 배를 함께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心下 부위의 복부’, 즉 명치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열이 심해 풍이 생긴다는 맥락에서 “鄉里有人, 忽覺心腹中熱甚, 服治風藥而愈.”라고 설명된 경우에는,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슴과 배에서 심한 열을 느꼈는데 풍을 치료하는 약을 먹고 나왔다.”와 같이 “가슴과 배”로 풀어야 한다. 中風의 증상이 몸 전반에 발열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心腹脹滿者爲實, 爲邪在裏, 心腹濡滿者爲虛, 爲邪在表.”의 경우에는, “대개 명치가 불러 오르면서 그득한 것은 실증으로 사기가 속에 있는 것이고, 명치가 부드러우면서 그득한 것은 허증으로 사기가 겉에 있는 것이다.”와 같이 배의 위쪽인 명치로 번역해야 한다. 가슴은 흉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슴 부위가 부드러워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²⁷⁾

이처럼 한의학 관련 번역에서 문법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전문지식을 전제하고 생략한 부분이 많아 이를 고려하고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의학 전문 술어에 대한 대역어 기준을 제시하여 『의방유취』와 같은 대규모 의서 번역이나 학제 간 공동 번역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4.2.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번역 연구 수행

그간의 한의학 분야 번역은 관심 있는 개인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협동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개인이 아닌 기관이나 조직이 번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흐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의 효율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제 간 협동이 필요하다. 그간 한의학 관련 번역은 교육이나 임상 활용 등 텍스트 내부의 의학지식에 관심을 두고 있어 번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판본의 선정이나 원문 교감의 문제를 간과한 경우가 많았다. 판본 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최근에는 이런 노력을 회피하고자 중국에서 발간된 교감본을 母本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 善本을 찾아 母本으로 선정하여 원문을 확보하고 이중 판본과의 교감을 수행하는 작업은 서지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한의학 전공자들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한의학 분야 번역에서 이를 역자 개인이 담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둘째, 한의학 분야 번역 대상서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순수하게 한의학 이론을 중심으로 서술된 서적의 경우에는 한의학 전공자들만으로 번역이 충분하지만, 치료 경험을 기록한 의안 부분이나 유학 지식이 높았던 儒醫들이 기록한 의서의 경우에 때때로운 번역이 어려운 경우가 많

27) 앞의 오역 예시들은 필자들의 초벌번역 수정 경험이나 의서 독해 과정에서 실제로 접했던 것들이다. 구체적인 인용서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어 논고에 밝히지 못하였다.

다. 근래에 발굴된 『愚峯雜著』에는 저자가 직접 경험한 치험례가 구어체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경우 한의학 지식만으로는 번역에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본서는 한문 전공자가 초벌 번역을 수행하고 한의학 전공자가 후속 번역을 수행하여 완성될 수 있었다.²⁸⁾ 이러한 서적들은 특히 한문학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작업할 경우 보다 좋은 번역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전문번역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현대 한의학은 과거에는 없던 방식으로 의학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발간되고 있는 많은 논문 성과들이 그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개인의 저작에 실려 있던 논설들이 오늘날에는 학계에서 발표되어 논문이 되고 있다. 학문 내외의 이런 변화에 따라 한의학 전공자들 역시 전통 의서가 아닌 현대 의서 혹은 논문을 열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때를 맞추어 자유롭게 한문으로 읽고 쓰기가 가능했던 1세대 한의학자들이 퇴진하면서 한문 교육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는 한의학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전통 한의서를 직접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번역문만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유려하고 수준 높은 번역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번역을 주도하는 계층 역시 전문 역자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번역을 개인의 역량에 맡겨두기 보다는 학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한의학 전문번역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번역 대상서의 편중 현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의학 번역에서 번역 대상 편중 현상은 심각하다. 번역이 학술 활동의 하나라고 한다면, 풍성한 번역이 학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편중은 자원의 독점으로 이어져 지적 토양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된다. 이런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중요 분과 의서, 새로운 발굴 의서, 한국적 색채를 지닌 경험 의서들의 다양한 번역이 필요하다.

28) 장태경 저, 안상우·황재운 역, 앞의 책.

이상의 이유로 인해 향후 한의학 분야 번역에는 번역을 선도할 기관이나 조직이 필요하다. 근래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성과는 이런 일례를 잘 보여 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전통의학 고전국역총서’(총 42책)라는 이름으로 우리 의학의 고전적들을 번역하고 이를 원문과 함께 현대적으로 편집하여 출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한국고유의 의서 중 고유이론, 처방, 약물서적 중심의 서적을 발굴하여 번역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일반인과 전문 연구자들에게도 일차 사료에 가까운 자료들을 제공하여 연구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번역사업은 영남·호남 등 지방의학서 및 민간의학서를 발굴하고 완역함으로써 한의학 외연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3. 지식 인프라로서의 수월성 확보

지금까지 한의학 분야 번역은 개인의 공부나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또 임상에서 얻은 자신의 의학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원문을 번역하여 자신의 주장과 원문을 매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의 한의학 분야 번역은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기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의학 전공자들의 한문 능력 저하의 반작용으로 전문 연구 번역의 요구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한의학의 저변이 전공자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인문, 생물자원, 농업, 생의학, 식품영양 등 타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 활동을 고려한 번역이 요구된다. 또한 그간의 산발적인 번역을 지양하고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서적들을 번역함으로써 임상의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준에 다다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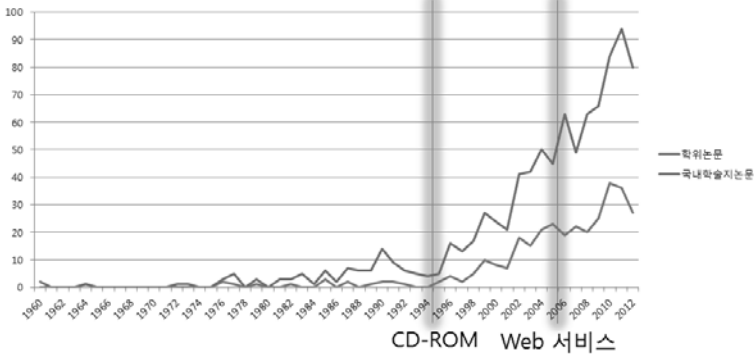
기술의 발전 역시 번역 활동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인류의 지식은 종이 위에 적혀 유전되었다. 하지만 컴퓨터와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

으로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접근하는 지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IT 기술 위에 만들어진 지식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검색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연구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조선왕조실록』의 디지털화를 한 가지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1968년부터 1993까지 국역되어 1995년 CD-ROM database로 만들어졌으며, 2006년부터는 온라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단순히 관련 논문 수를 추산해 본 결과만 보더라도 조선왕조실록 원문과 번역문이 디지털화 된 이후 관련 분야 연구가 극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²⁹⁾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번역 결과들이 전자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정된 지면에 서술되던 校勘, 注釋 등의 내용들은 온라인 상에서 원문과 번역문의 메타데이터 형태로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사하거나 같은 정보를 되풀이하여 서술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사용자의 검색 편의뿐만 아니라 번역의 질을 위해서도 동일한 술어에 대한 동일한 대역어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많은 원문과 대역어들이 메타데이터 형태로 전환되어 대역어 통일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또한 한문 분야에 특징 가운데 하나인 典故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색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문자열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 문장들을 찾을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충분한 양의 문헌이 디지털화 된다면 典故를 찾는 일도 한결 손쉬워질 것이다. 이를 위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번역은 갖가지 공구서 DB가 지원되는 번역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번역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간직한 번역 노하우가 집단에게 공유되게 함으로써, 번역 역시 집단지성의 시대에 걸맞은

29) 본 자료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조선왕조실록” 키워드로 검색된 학위논문 및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수를 정리한 것이다.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정밀한 결과 값은 아님을 밝힌다. (URL : <http://www.riss.kr>, 검색일 : 2013년 5월 1일).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그림 5〉『朝鮮王朝實錄』 원문 및 번역문의 디지털화 이후 관련 연구 추이

5. 맺음말

번역은 불모지를 개간하는 개간 사업과 유사하다. 개간할 땅을 고르듯 지식을 키워낼 좋은 텍스트를 찾고, 자갈을 골라내듯 분명히 이해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린다. 약한 地氣를 기르기 위해 거름을 주듯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추적하여 뜻을 밝히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듯 지식의 열매가 싹틀 수 있도록 문맥을 연결하고 행간의 語氣를 살린다. 이렇게 번역된 텍스트는 좋은 토지가 되어 풍성한 지식의 열매를 가져다준다.

한의학이 인간의 질병과 치료를 다루고 있는 실용 학문인만큼, 한의학 분야 번역은 특히 지식 인프라로서의 속성이 강하다. 잘 번역된 한의학 문헌은 한의학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타분야 전문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밀한 번역이 수행되어야 한다. 모호한 표현일수록 자세한 고증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하며, 적절

히 번역되지 않는 곳은 알 수 없다고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한의학 분야에서 오역은 곧바로 잘못된 시술이나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한의학 분야 번역은 한의계 내부의 역량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왔다. 60년대 『동의보감』이 초역된 이래로 70년대 중요 원전 의서와 임상 의서가 번역되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대상 서적의 범위가 확대되고 학생들까지 번역에 참여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전문역자 계층이 성장하고 한의학 번역의 질적인 반성이 이루어지는 등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의학 분야 번역은 한의학 전공자가 같은 한의학 전공자를 독자로 상정하고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목적에 있어서도 학교 교육이나 개인의 학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번역 대상서 역시 인지도 높은 의서를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번역에서 善本 선정과 원문 교감이 간과되거나 독자층에 대한 고려 없이 기획되는 문제들은 한의학 분야 번역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또 번역 자원이 한 쪽으로 집중되면서 다양한 번역이 제한되는 폐단도 해소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의학 분야 번역은 학계 내외로부터 좀 더 높은 학술적인 완성도와 체계적인 효율성을 요구받을 것이다. 정보는 책뿐만 아니라 전자매체로 공개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열람하고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간 한의학계 내부 동력만으로 많은 한의서들이 번역되어 왔지만, 번역 대상서를 다양화하고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의 전문성은 심화시키면서도 다른 학문 분야와의 공동 번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 고유의 실용성을 살리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번역 이후 활용 분야와의 연계에 대한 체계인 접근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해 자료 조사에 협조해 주신 경희대학교 한의학도서관 관계자 분들과 『조선왕조실록』 관련 연구 동향을 정리해 주신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정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김기욱 외,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 김남일, 『醫書의 刊行을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醫史學』 15(1), 대한의사학회, 2006.
- 김달호·이종형 공편역, 『(주해보주)황제내경소문』, 의성당, 2001.
- 김용옥, 『너와 나의 한의학』, 통나무, 1993.
- 김용한·김영호·김은하, 『『동의보감』 번역서에 대한 이견』,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3(1), 대한한의원전학회, 2010.
- 김용한·김은하, 『『동의보감』에 쓰여진 허준 문장의 문법적 특성과 번역서 오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4(6),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10.
- 김형태, 『(도해)동의수세보원』, 정담, 1999.
- 당종해 저, 김준기 역, 『(국역)본초문답』, 대성문화사, 1994.
- 대한한의사협회, 『大韓韓醫師協會 四十年史』, 대한한의사협회, 1989.
- 맹웅재, 『동의보감 한문 번역본의 잘못된 점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의학지』 10(1), 한국전통의학연구소, 2000.
- 박상영·권오민·오준호, 『열하일기 소재 금료소초 번역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5(1), 대한한의원전학회, 2012.
- 박상영, 『한의학 관련 자료 번역의 문제와 전망』, 『고전번역연구』 제3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 三木榮,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1973.
- 小曾戶洋, 『日本漢方典籍辭典』, 大修館書店, 1999.
- 엄연석, 『고전번역의 중요성』, 『선비문화』 제21집, 남명학연구원, 2012.
- 이규필, 『근현대 古典翻譯에 대한 一考察』, 『고전번역연구』 제2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1.
- 이현주, 『芸田 許珉의 繪畫 小考』, 『조형연구』 제11집, 동아대학교 부설 조형연구소, 2005.
- 장개빈 저, 안영민 역, 『경약전서』, 한미의학, 2006.
- 장유승, 『학술번역이란 무엇인가』, 『고전번역연구』 제3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 장태경 저, 안상우·황재운 역, 『국역 우감잡저』,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 허준 저, 허민 역, 『상역 동의보감』, 동양종합통신대학교육부, 1964.
- 학술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 (검색일 : 2013년 5월 1일).

Current Status and Future Issues of Translation in Korean Medicine's Literature

Oh, Junho / Kwon Ohmin*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issues of the modern Korean translation of medical classics written in ancient Chinese. Korean Medicine as a scholarly endeavor is a practical science that examines the body, diseases and treatments. Thus, when it comes to the transmission of its knowledge and techniques, essential is the exact translation of ancient medical books and documents into modern vernacular language. This is because incorrect translation can lead to killing or hurting innocent people. Translators should decode, interpret and transform ambiguous, abstruse or illegible words/phrases/sentences into clear meaning as well as translate them precisely into modern language. If there is a currently unsolved issue associated with translation, translators reasonably let them clearly publicized and leave them for future research.

Korean Medicine doctors and scholars have mainly engaged in translating the ancient literatur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ajor medical canonical and clinically-oriented books were translated through to the 70s following the initiation of *Donguibogam* translation in the 60s. In the last two decades of the 20th century the scope of translated literature was enlarged and translating community extended to graduating classes of Korean Medicine colleges. Since the new millennium there are two game-changing shifts in relation to the translation of Korean Medicine's literature: shaping of a professional translator group and resultant prioritizing of translational quality.

Translation of Korean Medicine's literatur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nner members of Korean Medicine community straightforwardly transliterate it for peer members and is aimed at mentor-apprentice transmission or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oretical/practical medical knowledge and

*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junho@kiom.re.kr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fivemink@kiom.re.kr

practices. Therefore, range of selected medical books is confined to popular and highly visible ones. Translators affiliated to the Korean Medicine professional community has yet to consider seriously issue of the authenticity of source-language texts and issue of readership.

Call for translational integrity will intensify inside and outside of relevant professional groups, and scope of readership will diversify. New forms of communication channels such as web-based media have been employed beyond conventional paper and efforts will be made to discover useful knowledge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scientific R&D and commercialization.

Future issues connected to the current status of translation in Korean Medicine are as follows. Joint or team approach where heterogeneous experts participate is needed to improve translation quality. Expansion of source texts of, and thorough planning for translation are indispensable to suit changing medical, cultural and economic environments.

(Key words) Korean Medicine, Oriental medicine, translation, classic, medical literature

논문 투고일 : 2013. 4. 20. 심사 완료일 : 2013. 5. 20. 게재 확정일 : 2013. 6. 11.
